

※ 일본의 다수 기업 및 JICA가 개발에 참여중인 미얀마 티라와 경제특구 개발 사업에 대한 최근 NEXI의 해외투자보험 제공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

## **NEXI, 미얀마 티라와 경제특구 개발사업 앞 보험 제공**

(2015. 1. )

동경사무소

- 일본무역보험(NEXI)은 최근 미얀마 티라와 경제특구 개발 사업과 관련, MMSTD\*의 출자분에 대한 해외투자보험의 인수를 결정

\* MMS Thilawa Development Co.Ltd. : 미쓰비시상사, 마루베니, 스미토모상사가 합작으로 설립한 개발회사로 티라와경제특구개발회사(MJTD)의 일본측 주요 투자자임

### **※ 주요 해외투자보험 제공 조건**

- 피보험자 : MMSTD
- 투자처 : MJTD (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.)
- 보험가액 : 14백만달러
- 보상범위 및 커버율 : 비상위험 95%
- 보험기간 : 15년

(참고) 미얀마 티라와 수출산업단지조성사업 위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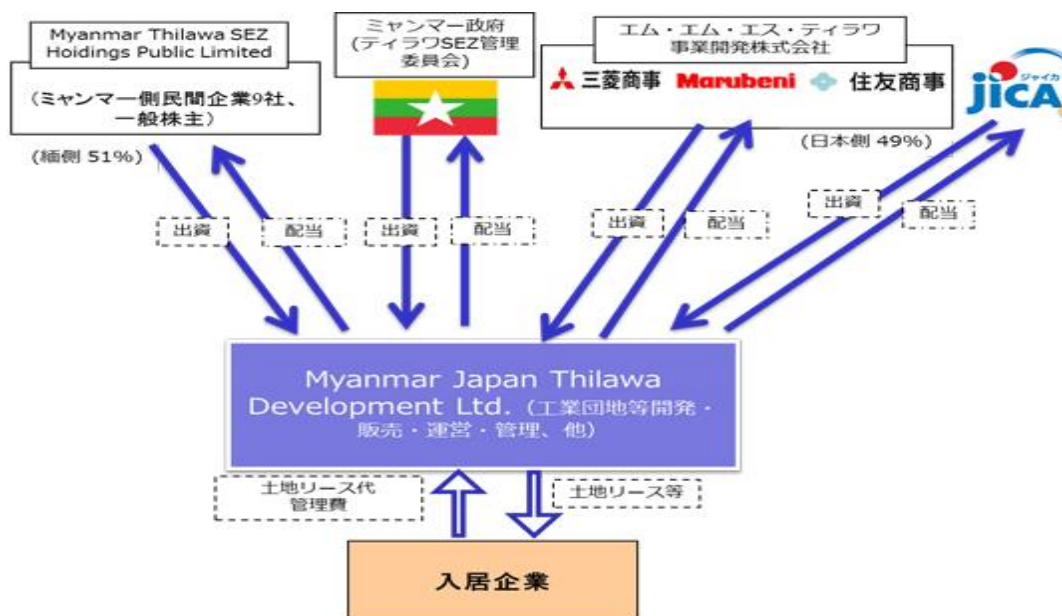
□ 미얀마 수도 양곤과 인접한 티라와 지역은 1990년대에 싱가포르 주도의 개발 추진이 좌절된 바 있으나, 2011년에 출범한 新정권이 외자 도입 모델로 개발을 재추진함에 따라 2013년 중 일본 주도의 개발 추진이 확정됨

○ 이후 JICA는 티라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엔차관을 지원한 바 있으며, 미쓰비시상사/마루베니/스미토모상사는 공업단지 조성/판매/운영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전개해 왔음

□ 또한, 2014년 중 JICA는 성공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이례적으로 출자를 시행하였는 바, 현재 티라와경제특구개발회사(MJTD)의 지분 10%를 보유중임

○ 현재 MJTD의 지분 비율은 미얀마측 51% 및 일본측 49%로 JICA 외 나머지 일본측 지분(39%)을 피보험자인 MMSTD가 보유중

(참고) 미얀마 티라와 공업단지 출자 개요도



- 한편, 티라와 공업단지는 총 2,400여 헥타르 규모로 계획되었는 바, 금년 2015년 상반기 중에는 400헥타르 규모의 제1구역(Class A)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 - Class A지구는 양곤시 근교(약 20km)에 위치함으로써 수출 가공 거점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내용 생산 거점으로서도 유용한 입지로 평가됨
- 또한, 정부계 기관인 JICA의 출자 외에도 금번 NEXI의 해외 투자보험 제공에 따라 일본 주도의 티라와 공업단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